

# ‘뚝방마켓에 날개 달다’...곡성군, 지역관광 활성화 속도

### 행안부 ‘로컬브랜딩 지원사업’ 선정...특교세 3억 확보 공실상가 활용 마켓 확장...천변 야간경관 조성 등 추진

곡성군이 행안부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역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곡성군은 31일 “섬진강기차마을 인근 하천둑에서 선보이고 있는 뚝방마켓과 관련, ‘뚝방마켓에 날개 달다’라는 주제로 로컬 브랜딩 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로컬브랜딩 사업은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첫 해 특교세 3억원을 지원한다. 2년 차에는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 지자체별로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브랜딩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뚝방마켓은 2016년 섬진강기차마을 주변에 방치된 하천둑을 정비하며 조성한 플라마켓으로 현재까지 143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돼 군의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회 60팀 이상 전국 각지의 판매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함으로써 곡성군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예술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뚝방마켓을 시작으로 곡성읍 시가지에 창업을 시작하고 곡성군에 정착하는 정장년층이 생겨나며 공실상가를 활용한 낭만공방 거리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작가들은 스트리트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면서 다양한 활

동과 변화를 통해 뚝방마켓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군은 이번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해 공실상가를 활용해 뚝방마켓을 확장할 계획이다.

기차역에서 기차마을과 뚝방마켓, 전통시장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웨이파인딩(way-finding) 역할을 하는 통합 안내 사인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뚝방마켓 주변으로 곡성천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리는 자연생태 휴식공간을 구축하고 야간경관을 조성해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뚝방마켓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소통과 아이디어 모임 덕분에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향후에는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와 융합하는 공간으로서 뚝방마켓을 활용해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곡성=이호산기자



곡성 뚝방마켓이 행정안전부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마켓이 확장될 전망이다. 사진은 섬진강기차마을 인근 하천둑에서 열리는 뚝방마켓 모습. <곡성군 제공>

## ‘2023 담양군 공예명인’ 김영희씨 선정

### 전통자수 전문가...향후 발전 잠재력 부분서 높은 평가

전통 자수 전문가인 김영희씨가 ‘2023 담양군 공예명인’으로 선정됐다. 31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역 공예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예 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최근 담양군 공예명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심사 결과 공예명인으로 선정된 김영희씨는 2017년 대한민국 공예예술대전 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목포문화도시 선정 기념 특별초대, 개인전 및 기타 단체전 등을 포함한 다수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전통자수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또 자수를 전통공예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수를 이용한 머리핀, 앞치마, 안경보관함 등 실생활에 접목해 상품으로 제작하는 등 끊임없는 기술 숙련과 창조적인 작품을 제작하며 심사위원들



담양=정승균기자

로부터 향후 발전 잠재력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승모 투자경제과장은 “공예명인 선정이 창작활동에 좋은 동기부여가 돼 전통 공예문화와 현대적 디자인이 융합되는 참신한 공예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예명인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순천시 “싱싱포차서 여름의 맛 즐기세요~”

###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오는 2-4일 역전시장 제3주차장서

순천시는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주민 제안 공모사업 ‘싱싱포차: 활력충전, 여름의 맛’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월 2-4일 오후 4시30분부터 역전시장 제3주차장(풍덕주력길 19)에서 열린다.

역전시장은 전남 동부권 수산물 최대 집결지로, 신선한 식재료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지난 4월 진행된 ‘싱싱포차: 불의 미(味)향’ 행사 이후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철 식재료인 봉장어와 전복으로 세트를 구성, 제철 음

식을 숯불에 구워먹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여름밤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행사는 본 축제 개최를 위한 시범 운영 형태로 이뤄지며 문제점 등을 보완해 향후 순천 역전 마을조함·역전시장 상인회 등이 이끌어갈 상설 축제가 되도록 기획하고 있다.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관계자는 “6월 ‘싱싱포차:활력충전, 여름의 맛’은 역세권 주민협의체의 주도로 진행된다. 그간 여러 차례 시범 운영을 한 만큼, 사업이 끝난 후에도 자립할 수 있는 지역 행사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며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안전과 위생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천=정기기자

## 여수시, 정책실명제로 책임행정 펼친다

### 중점 사업 관련자 실명 기록 시민에 공개

여수시가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을 펼친다.

31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시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특히 시정 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의 주요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중점 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은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주요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시민의 신청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

또 ‘시민신청실명제’도 운영해 시민이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명

과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의 전반적인 사항과 추진 과정 등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며 “시민신청실명제를 통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며, 믿음과 신뢰를 주는 책임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된 정책실명제에서 총 517건의 주요 사업이 공개됐으며, 이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 화순군 ‘벼 육묘상자 자동이송장치’ 보급

### 인력으로 모판 옮기는 작업비 노동력·시간 절감

화순군은 “벼농사에서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드는 모판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벼 육묘상자 자동이송장치를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이서면 야사리 일원에 농촌진흥청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인 ‘벼 육묘상자 자동이송장치 시범사업’으로 벼 육묘상자 자동이송장치를 설치했다. <사진> 기계는 레일에 육묘상자를 올려놓으면 자동 이송돼 일일이 인력으로 모판을 옮겨 나르던 관행 대비 노동력과 시간이 60% 이상 절감된다.

화순농협 관계자는 “모판 치상·출하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다”며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해 농작업 생력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농사 기계화율이 83%로 높은 수준이지만 모판이 작업에는 여전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며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생력화 농기계·재배 기술을 적극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 장흥군, 김·미역 등 베트남 달랏에 수출...해외시장 확대

### 향후 5년간 100만달러 수출 예정

장흥군은 “최근 베트남 달랏시에 2천만원 규모의 김·미역 등 군 농특산물을 수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이번 수출은 5월 초 마이 꾸엔 트레이딩(베트남 달랏)과 수출 협약을 체결한 후 첫 번째 물량이다.

장흥군(정남진장흥직거래지원센터)은 베트남 달랏시 청년마트에 이미 두 차례 수출한 실적이 있다.

마이 꾸엔 트레이딩은 달랏시 청년마트에 지난 11일 ‘장흥군 특산품 판매센터’를 개관했다. 이곳에서는 장흥군 무산김, 표고버섯, 농수산물 가공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장흥군은 향후 5년 간 100만달러의



장흥군 농특산물을 수출할 예정이

다.

김성 군수는 “이번 수출을 통해 장흥군 농특산물 판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기업 및 농가의 수출품목 일관화로 ‘장흥군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남아, 유럽 등지로 수출

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오는 7월29일부터 8월6일까지 열리는 물축제 기간 동안 해외바이어를 초청, 지역 농특산물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수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장흥=노형록기자

## 장성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불편 최소화”

### 44곳 사용 불가...은행창구에 안내 전단지 비치 등 홍보

장성군이 6월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조치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31일 장성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6월1일부터 연간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가맹점에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신규 가입을 제한하며,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분은 사용처 제한 없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의 이 같은 조치로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반면, 지역 내 어디서든 지역화폐를 사용해 온 주민 입장에서 다소 불편이 따르게 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현재 등록된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1천85개 가운데 2%에 해당하는 44개소가 등록 취소된다”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일부 병원, 주유소 등이 포함돼 이용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변경된 내용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장성사랑상품권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품권 판매처인 은행창구에 전단지를 비치했다. 사용처 변경을 알리는 플래카드도 제작해 읍면별로 게시했다.

장성군 누리집에는 상품권 사용 제한 업소 명단을 공유해 필요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처 제한으로 불편이 큰 면단위 농촌은 지침 적용을 받지 않도록 건의하는 등 해결책 모색에도 힘쓰고 있다.

김한중 군수는 “민생과 지역경제에 기여해 온 장성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은 2019년 20여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 왔다. 올해 발행 목표액은 350억원이다. /장성=김태기 기자